

☛ 홈 > 뉴스 > 문화 > 문화일반

## 도문예진흥기금 관리‘구멍’

3년간 2억4000만원 세금 부당 원천징수 당해... 환급 어려울 듯

2008년 11월 17일 (월)

김형곤

강원문화재단이 관리·운영 중인 ‘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2억4000만원이나 빠져 나가는 등 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성(속초)도의원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 국가기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기금의 이자 수익분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기금 이자수익분인 16억원 중 2억4000만원이 관리소홀로 인해 세금으로 국가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부터 3년간 재단기금 160억원에 대한 연간 평균 이자수익이 5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4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3년간 세금이 부당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주 업무가 기금의 관리인데 2억원이 넘는 돈이 3년간이나 부당 세금으로 빠져나간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무 관계자 등에 의뢰한 결과 지난 3년간 낸 세금에 대한 소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금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발아’ 대표는 “재단의 인력 자체가 비전문 인력임을 자처한 꼴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전문인력의 보강과 동시에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원종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재단이 2005년 국가기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발생해 벌어진 일”이라며 “세무사를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급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 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탄생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 160억원의 기금이 누적된 상태로 200억원 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2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 수익분과 원금 일부를 사용,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김형곤·신화준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